

韓國레미콘工業의 實態調査 分析

金 知 鐵

〈韓國레미콘工業協會
調査課長〉

目次

1. 머리말
2. 調査概要
3. 레미콘工業의 實態現況
 - 가. 概 要
 - 나. 工場分布
 - 다. 生産能力
 - 라. 輸送裝備 保有現況
4. 레미콘生産現況
 - 가. 全國生産實績
 - 나. 地域別 生産實績
 - 다. 大·中小 企業別 生産實績
 - 라. 地域別 民·官需 生産實績
 - 마. 84年度 生産展望
5. 稼動現況
6.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의 레미콘工業은 65年度부터 시멘트의 流通構造改善 및 需要創出을 目的으로 서울 地域을 비롯한 釜山·大邱 등 限定된 地域內에서 最初로 시멘트業界에 의해 始作되면서 發展되어 왔다.

그후 78년부터는 國內建設 事業이 점차 大規模化 됨에 따라 建設業界가 自家消費를 主目的으로 參與하게 되었으며 특히 8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經濟規模가 擴大되고 土木建設 事業이 大都市뿐 아니라 全國의 中小都市까지 擴散 됨

에 따라 레미콘事業도 차츰 中小都市까지 波及되어, 크고 작은 工場들이 잇달라 新·增設되어 急進적으로 發展을 보게 되었으며, 最近에는 中小企業者들의 參與가 급속도로 增加되고 있는 實情에 있다. 이에따라 當協會에서는 精確한 國內 레미콘工業의 現況 파악을 위해 84年 5월 말을 기점으로 전면적인 調査를 착수했다. 그러나 當初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人員不足과 時間制約 및 一部 業界의 內的인 事情 등으로 인해 애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대체적으로 만족스런 結果를 얻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調査를 하여 精確한 레미콘工業 現況 資料가 되도록 補完해 나갈 計劃이다.

이 調査를 위해 協調해주신 레미콘業界 實務者 여러분께 眞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調査概要

가. 調査目的

이 調査는 上昇一路에 있는 우리나라 레미콘 業體의 實態를 明確히 把握함으로써, 레미콘工業의 持續的이고 均衡있는 發展과, 레미콘業界 相互間의 權益保護를 圖謀하며, 레미콘工業 育成을 위한 對政府 資料 提供을 위한 基礎資料를 確保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나. 調査期間

1984. 4. 16~5. 12

다. 調査範圍 및 對象

國內의 全레미콘業체인 40個社 85個 工場을 對象으로 調査를 착수했으나 實際로 調査한 結果, 45個社 96個 工場이 調査되었고, 新設중에 있는 會社는 5個社 5個 工場이 있었음. 따라서 本分析자료는 45個社 96個 工場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 調査方法

濟州地域은 우편조사를 했고 그의 지역은 當協會 職員이 現地에 파견되어 直接調査를 했다.

3. 레미콘 工業의 實態現況

가. 概 要

65年은 우리나라 레미콘工業의 元年이다. 當時 시멘트 會社중 하나인 大韓洋灰(75年 雙龍洋灰와 合併)는 그해 7월 서울 西氷庫에 500 m³/日의 벡처 1基, 믹서트럭 15대로 國內最初의 레미콘工場을 竣工, 生産을 開始했다. 그후 77년까지는 1個社의 힘으로 우리나라 레미콘工業을 이끌어온바 65~74년 까지는 大韓洋灰

가, 75~77년까지는 雙龍洋灰가 외로운 開拓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78年以後부터는 레미콘會社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 77년까지 1個社에서 이해들어 무려 7個社가 늘어났다.

이같은 增加趨勢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져 81년에는 19個社 44個 工場으로 늘어났으며, 83년에 와서는 무려 16個社가 증가된 40個社 85個 工場으로 急増되었다. 84년 5월말 현재 稼動이 確認된것만도 45個社 96個 工場으로 밝혀졌으며, 新設 중에 있는 會社는 5個社 5個工場이고, 既存會社가 工場을 新·增設하고 있는 것은 8개사 14개工場이었으며, 計劃중에 있는 것이 6個社 6個工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工場分布

84年 5월말 현재 稼動중인 45個社 96個工場의 地域別 分布(표 1)를 살펴보면 서울 京畿에 18個社 39個工場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그의 지역은 27個社 57個工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工場을 地域別로 볼것 같으면 京畿가 24個로 가장 많고 서울이 15個, 慶南(釜山包含)이 14個 慶北(大邱包含)이 13個인 反面 忠北은 2個工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레미콘需要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 되는 서울보다 京畿에 工場이 더 많이 세워진

〈표 1〉 地域別 레미콘工場 現況

(84. 5월말 기준)

地域別 區分	서울	京畿	江原	慶北	慶南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濟州	合計
會社數	18	-	3	12	12	1	6	5	6	3	45
工場數	15	24	4	13	14	2	8	6	7	3	96
B/P基數	28	37	5	18	20	2	8	7	10	4	139

주: 1) 지역별 회사수의 합계는 重複을 피한 숫자임.

2) 회사수에서 경기가 없는 것은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임.

3) 대구는 경북에 부산은 경남에 각각 포함.

〈표 2〉 大·中小企業別 레미콘工場 現況

(84. 5월말 기준)

企業別	區分	會社數	構成比 (%)	工場數	構成比 (%)	B/P基數	構成比 (%)	비 고
大企業		17	37.8	66	68.7	101	72.7	
中小企業		28	62.2	30	31.3	38	27.3	
合 計		45	100.0	96	100.0	139	100.0	

註：大企業은 資産이 60億원이 넘는 17個會社를 기준으로 한 것임.

原因은 ① 營業거리로 보아 京畿에서도 서울地域 營業이 可能하다는점,

② 서울지역에서는 工場敷地 確保 및 레미콘의 主要 原資材인 骨材調達 등의 곤란으로 工場設立이 어려우며, ③ 서울을 중심으로한 副都心開發이 활발해진점, ④ 그의 環境保全, 공해문제 등의 次元에서 볼 때 서울에 인접한 京畿一圓이 적합하다는點 등이 그 原因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大企業과 中小企業과의 工場分布〈표 2〉는 大企業이 全体工場の 68.7%인 66個 工場을 中小企業은 31.3%인 30個工場을 갖고 있으며, 덧붙여 있어서도 大企業이 72.7%인 101基을, 中小企業은 27.3%인 38基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大企業은 1個社가 대략 4개工場을 갖고 있는 反面, 中小企業은 1個社가 1個工場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生産能力

전국레미콘 生産能力〈표 3〉은 時間當 15,090 m³이며, 1日間能力은 120,720m³이고,年間 生産能力이 30,180千m³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地域別 年間 生産能力을 보면 서울·경기가 17,470千m³로써 전체 生産能力의 절반이 넘는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慶南(釜山包含)이 3,650千m³로 12.1%, 慶北(大邱包含)이 3,356千m³로서 11.1%의 生産能力을 갖

〈표 3〉 地域別 레미콘 生産能力 現況

(84. 5월말 기준)

(單位：M³)

區分 地域別	時間當	1日間 生産能力	年 間 生産能力	構成比 (%)
서울·京畿	8,735	69,880	17,470,000	57.9
江 原	280	2,240	560,000	1.8
慶 北	1,678	13,424	3,356,000	11.1
慶 南	1,825	14,600	3,650,000	12.1
忠 北	160	1,280	320,000	1.1
忠 南	784	6,272	1,568,000	5.2
全 北	509	4,072	1,018,000	3.4
全 南	855	6,840	1,710,000	5.7
濟 州	264	2,112	528,000	1.7
合 計	15,090	120,720	30,180,000	100.0

註：1) 1日間 生産能力은 時間當 能力에다 8時間을 代入한 數字임.

2) 年間 生産能力은 1日間 生産能力에다 250日을 代入한 數値임.

3) 大邱는 慶北에, 釜山은 慶南에 各各포함.

고 있는 반면, 忠北은 320千m³로 겨우 1.1%의 生産能力을 갖고 있을 뿐이다.

한편 大·中小企業間的 生産能力을 비교해보면 〈표 4〉에서 보듯이 84년 5월말까지는 全体 生産能力의 80.6%인 24,340千m³를 大企業이 點하고 있는 반면, 中小企業은 19.4%인 5,840千m³에 불과한 生産能力을 갖고 있을 뿐이다. 또한 年度別 生産能力〈표 5〉은 81년에는 全体 生産能力이 前年對比 25.9%가 增加한 16,440千m³로 이중 大企業이 91.2%, 中小企業은 8.8%, 82년에는 12.7%가 增加한 18,528千m³ 중

〈표 4〉 大·中小企業別 레미콘 生産能力現況

(84. 5월말 기준) (단위: m³)

區分 企業別	時間當 生産能力	1日間 生産能力	年間 生産能力	構成比(%)	비고
大企業	12,170	97,360	24,340,000	80.6	
中小企業	2,920	23,360	5,840,000	19.4	
合計	15,090	120,720	30,180,000	100.0	

- 주: 1) 1일간 생산 능력은 시간당 능력에다 8시간을 대입한 숫자임.
 2) 연간 생산 능력은 1일간 생산 능력에다 250일을 대입한 숫자임.
 3) 대기업은 자산 60억원이 넘는 17개 회사를 기준으로 한 것임.

〈표 5〉 年度別, 大·中小企業別 生産能力現況(84. 5월말 기준)

(單位: 千m³)

區分 企業別	81		82		83		84	
	生産能力	構成比	生産能力	構成比	生産能力	構成比	生産能力	構成比
大企業	15,000 (21.0)	91.2	16,010 (6.7)	86.4	21,760 (35.9)	83.4	24,340 (11.8)	80.6
中小企業	1,440 (118.2)	8.8	2,518 (74.9)	13.6	4,332 (72.0)	16.6	5,840 (34.8)	19.4
合計	16,440 (25.9)	100.0	18,528 (12.7)	100.0	26,092 (44.0)	100.0	30,180 (15.7)	100.0

註: 生産能力은 時間當 能力에다 8時間(1日)을 代入한 후 250日을 다시 代入하여 算出된 年間生産 能力임.

()内는 前年度對比 増加率임.

에서 大企業이 86.4%, 中小企業은 13.6%이며, 83年度에도 44%가 増加된 26,092千m³ 중에서 大企業이 83.4%, 中小企業은 16.6%의 生産能力을 갖고 있다.

이상과 같이 中小企業의 生産能力은 점차 増加되고 있는 반면 大企業은 減少되고 있지만 아직도 80% 이상을 點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표 2〉에서 나타나듯이 會社數에서는 中小企業이 大企業보다 1倍半을 넘고 있지만 工場數에서는 大企業이 中小企業보다 2倍가 넘고 있으며, 軋切基數에서도 大企業이 2倍半을 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大型 建設 工事に 따른 레미콘 供給集中化와 品質均一化를 위해 設備의 大型化 및 自動化에 의한 大企

業의 參與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地域別生産能力(표 6)을 살펴보면 81년에 서울·京畿가 全体生産能力 16,440千m³ 중 54.5%인 8,890千m³인 반면, 地方은 45.5%인 7,550千m³이고, 82년도는 18,528千m³ 중 서울·京畿가 58%인 10,510千m³을, 地方이 42%인 8,018千m³이며, 83년은 26,092千m³ 중 서울·京畿가 57.8%인 15,090千m³을, 地方이 42.2%인 11,002千m³이며, 84년도에 와서도 全体生産能力 30,180千m³ 중에서 서울·京畿가 57.9%인 17,470千m³을, 地方이 42.1%인 12,710千m³의 生産能力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서울·京畿가 全体生産能力의 57%를 點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地域別 레미콘 生産能力 現況(84. 5월말 기준)

(單位: 千m³)

區分 地域別	81		82		83		84	
	生産能力	構成比	生産能力	構成比	生産能力	構成比	生産能力	構成比
서울·京畿	8,890	54.5	10,510	58.0	15,090	57.8	17,470	57.9
地方	7,550	45.5	8,018	42.0	11,002	42.2	12,710	42.1
合計	16,440	100.0	18,528	100.0	26,092	100.0	30,180	100.0

註: 1) 生産能力은 時間當能力에다 8時間(1日)을 代入후 다시 250日을 代入하여 算出된 年間生産能力임

라. 輸送裝備 保有現況

84년 5월말 現在 우리나라 레미콘 業界가 保有하고 있는 믹서트럭數는 〈표 7〉 3,408대로 나타났다. 이를 規格別로 保有現況을 살펴보면 3.5m³가 313대, 4.5m³가 93대, 5m³가 49대, 6m³가 720대, 7m³가 481대 및 7.5m³가 1,752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6m³ 이상 믹서트럭이 전체트럭數의 86.6%인 2,953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창기 때와는 달리 해가 갈수록 工事規模가 大型化됨에 따라 新規會社들은 設立당시부터 經濟性을 고려해 보통 6m³ 이상의 믹서트럭을 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京畿가 全体 保有 台數의 63.4%인 2,160대를 保有하고 있으며, 慶南(釜山包含)이 13.9%인 476대, 慶北(大邱包含)이 8.2%인 280대를 保有한 반면, 忠北은 0.9%인 31대, 濟州는 0.8%인 29대 밖에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大企業 對 中小企業間의 믹서트럭 保有現況을 볼 것 같으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企業이 全体믹서트럭數의 84.4%인 2,878대를 保有하고 있는 데 반해, 中小企業은 15.6%밖에 되지 않는 530대를 保有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生産能力 對 輸送能力(표 9)을 살펴보

〈표 7〉 地域別·規格別 믹서트럭 保有現況

(84. 5월말 현재)

區分 地域別	規格別 車輛數(台)						計	構成比 (%)	비 고
	3.5m³	4.5m³	5m³	6m³	7m³	7.5m³			
서울·京畿	146	33	29	540	174	1,238	2,160	63.4	
江 原	18			6		18	42	1.2	
慶 北	50	5	2	26	44	153	280	8.2	
慶 南	63	46	15	100	146	106	476	13.9	
忠 北	1				30		31	0.9	
忠 南	19			30	51	45	145	4.2	
全 北	4	7	3	10		84	108	3.2	
全 南	11			5	25	96	137	4.2	
濟 州	1	2		3	11	12	29	0.8	
合計	313	93	49	720	481	1,752	3,408	100.0	

〈표 8〉 大·中小企業別 믹서 트럭 保有現況

(84. 5월말 기준)

區分 企業別	規格別 車輛數(台)							構成比 (%)
	3.5m ³	4.5m ³	5m ³	6m ³	7m ³	7.5m ³	計	
大企業	308	83	46	672	340	1,429	2,878	84.4
中小企業	5	10	3	48	141	323	530	15.6
合計	313	93	49	720	481	1,752	3,408	100

註: 大企業은 資産 60億원이 넘는 17個會社를 기준으로 한 것임.

면 1日間の 全体生産能力은 120,720m³ 이며, 1回輸送能力은 22,780m³ 이다. 따라서 1日間輸送回轉能力은 約5回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레미콘의 저장 및 운반시간에 있어 時限的(生産에서 現場打設까지의 時間 90分)인 特殊性으로 보아 매우 適當한 回轉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地域別로 살펴보면 서울·京畿의 1日間 生産能力은 69,880m³ 이고 1回輸送能力은 14,661m³ 로써 1日間 輸送回轉能力은 約5回轉을 하고 있으며, 慶南(釜山包含)의 1日間 生産能力은 14,600m³ 에 1回輸送能力은 2,920m³ 로써 1日間 輸送回轉能力은 역시 5回轉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京畿, 慶南, 全北地域의 回轉能力은 適當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반해, 그외 地域은 生産能力에 비해 過多한 輸送能力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레미콘 生産 現況

가. 全國生産실적

레미콘은 저장 및 운반시간에 있어서 時限的인 製品이므로 生産이 곧 消費로 직결된다. 따라서 근거리의 工場에서 신속한 時間內에 多量의 레미콘을 均一한 品質로 供給해야 하는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레미콘 生産(出荷)

〈表 9〉 地域別 生産能力 對 輸送能力
(84. 5월말 기준)

(단위: M³)

區分 地域別	1日間 生産能力	1回 輸送能力	1日間 輸送回轉能力
서울·京畿	69,880	14,661	4.8
江原	2,240	234	9.6
慶北	13,424	1,819	7.4
慶南	14,600	2,920	5.0
忠北	1,280	213.5	6.0
忠南	6,272	941	6.7
全北	4,072	750.5	5.4
全南	6,840	977.5	7.0
濟州	2,112	197.5	10.7
合計	120,720	22,780.5	5.3

註: 1) 1日間 生産能力은 時間當能力에다 8時間을 代入한 數字임.

2) 1回 輸送能力은 規格別 能力을 合計한 數字임.

3) 1回 輸送回轉能力은 1時間生産能力 ÷ 1回 輸送能力임.

實績 〈표 10〉은 72년도에 13.4%가 減少된것을 除外하고는 매년 增加되어 작게는 5.9% (80년도)에서 크게는 123.5% (73년도)의 높은 成長을 해왔다(단 초창기의 66년도 實績은 例外임) 이는 앞으로 86 아세안게임과 88 올림픽 등 大型建設事業 및 일반국민들의 레미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레미콘 수요는 계속 增加될 것으로 展望된다.

나. 地域別 生産실적

한편 地域別 레미콘 生産實績 〈표 11〉은 80년

〈표 10〉 年度別 레미콘 生産實績

(단위 : m³)

년도	會社數	生産量	增加率(%)	비 고
1965	1	3,893	-	
1966	1	49,406	1,169.4	
1967	1	96,828	96.0	
1968	1	163,796	69.2	
1969	1	226,067	38.0	
1970	1	242,780	7.4	
1971	1	315,821	3.1	
1972	1	273,415	13.4	
1973	1	611,016	123.5	
1974	1	783,296	28.2	
1975	1	988,464	26.2	
1976	1	1,347,006	36.3	
1977	1	1,961,138	45.6	
1978	8	3,647,978	86.0	
1979	12	5,548,146	52.1	
1980	16	5,877,997	5.9	
1981	19	7,142,370	21.5	
1982	25	9,542,489	33.6	
1983	40	14,689,761	53.9	

註 : 증가율은 전년대비 레미콘 생산량의 증가율임.

山包舍)이 13.4%인 788,009m³, 慶北 (大邱포 함)이 13.6%인 800,178m³을 生産하여 以上の 3地域이 全体生産量の 90%를 넘게 生産하고 있으며, 全南은 1.5%로써 84,487m³에 불과한 레미콘을 生産을 했으며, 江原, 忠北, 濟州는 아직 生産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81년도에는 서울·京畿가 全体生産量 7,142,371m³ 중에서 64.8%인 4,603,206m³을 生産했으며 그의 地域이 35.2%인 2,539,165m³을 生産했으며, 82년도는 全体生産量 9,542,490m³ 중 서울·京畿가 63.7%인 6,073,870m³을 生産했고, 그의 地域이 36.3%인 3,468,620m³을 生産했다. 그리고 83년에 와서는 서울·京畿가 63.4%인 9,310,972m³을 生産했으며, 慶南(釜山包舍)이 17.4%인 2,555,169m³ 慶北(大邱包舍)이 8.7%인 1,273,939m³을 生産하여 以上の 3地域이 約 90%인 13,140,080m³를 生産하고 있는데 반해 그의 地域의 生産量은 불과 10%에 지나지 않는 1,549,681m³을 生産할 뿐이다.

도 全体生産量 5,877,998m³ 중 서울·京畿가 65.2%인 3,834,862m³을 生産했으며, 慶南(釜

다. 大·中小企業別 生産實績

한편 大·中小企業別 레미콘 生産實績〈표 12〉

〈표 11〉 地域別 레미콘 生産實績

(單位 : M³)

區分 地域別	'80		'81		'82		'83	
	生産量	構成比 (%)	生産量	構成比 (%)	生産量	構成比 (%)	生産量	構成比 (%)
서울·京畿	3,834,862	65.2	4,603,206	64.8	6,073,870	63.7	9,310,972	63.4
江原					33,413	0.4	81,188	0.6
忠北							108,945	0.7
忠南	237,518	4.0	267,060	3.8	343,693	3.6	503,252	3.4
全北	132,944	2.3	91,997	1.3	194,546	2.0	308,230	2.1
全南	84,487	1.5	138,184	1.9	269,852	2.8	446,728	3.0
慶北	800,178	13.6	737,256	10.3	858,555	9.0	1,273,939	8.7
慶南	788,009	13.4	1,277,501	17.9	1,739,282	18.2	2,555,169	17.4
濟州			167	0.0	29,279	0.3	101,338	0.7
合 計	5,877,998	100.0	7,142,371	100.0	9,542,490	100.0	14,689,761	100.0

〈표 12〉 大·中小 企業別 레미콘 生産實績

(單位: M³)

區分 企業別	'80		'81		'82		'83	
	生産量	構成比 (%)	生産量	構成比 (%)	生産量	構成比 (%)	生産量	構成比 (%)
大 企 業	5,778,267	98.3	6,997,062	98.0	9,105,592	95.4	13,288,565	90.5
中 小 企 業	99,730	1.7	145,309	2.0	436,898	4.6	1,401,196	9.5
合 計	5,877,997	100.0	7,142,371	100.0	9,542,490	100.0	14,689,761	100.0

註: 大企業은 資産 60億원이 넘는 17個 會社를 기준으로 한 것임.

은 80년도 大企業이 全体生産量の 98.3%인 5,778,267m³을 生産했는데 반해, 中小企業의 生産은 불과 1.7%인 99,730m³을 生産했다.

81년에도 大企業이 全体生産量の 98%인 6,997,062m³을, 中小企業은 2%인 145,309m³을 生産했으며, 82년은 大企業이 95.4%인 9,105,592m³을, 中小企業이 4.6%인 436,898m³을 生産했고, 83년에 와서는 서울·京畿의 生産이 前年對比 約 5%가 減少된 90.5%인 13,288,565m³을 生産했고, 中小企業의 生産은 前年對比 約 5%가 增加된 9.5%인 1,401,196m³을 生産했다. 이는 83년도에 와서 中小企業 15個業체가 新設되어 生産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地域別, 民·官需 生産實績

地域別로 民·官需의 生産實績을 살펴보면,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의 경우 全体生産量 5,877,997m³ 중에서 69%인 4,053,131m³가 民需物量인 반면 31%인 1,824,866m³는 官需物量이었으며, 81년에도 全体生産量 7,142,371m³ 중 66.8%인 4,772,383m³가 民需物量이고, 33.2%인 2,369,988m³는 官需物量이었다. 또한 82년 역시 全体生産量 9,542,490m³ 중 民需는 前年對比 3.7%가 減少된 63.1%인 6,022,778m³인 반면 官需는 3.7%가 增加된 36.9%인

3,519,712m³을 生産했으며, 83년에 와서는 全体生産量 14,689,761m³ 중 民需는 前年對比 6.2%가 增加된 69.3%인 10,178,412m³가 生産되었으며, 官需는 오히려 6.2%가 減少한 30.7%인 4,511,349m³을 生産했다.

또한 서울·京畿地域을 살펴보면 80년의 경우 民需 64.5%, 官需 35.5%, 81년 民需 62.2%, 官需 37.8%, 82년 民需 60.5% 官需 39.5%, 83년 民需 68.2%, 官需 31.8%로 一般的으로 民需가 2/3以上을 生産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 84年度 生産展望

다음에는 1984年度 레미콘 生産展望을 볼 것 같으면 〈표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全体生産量을 16,498千m³로 推定하면 이중에서 民需는 67%인 11,053千m³가 生産될 것이며, 官需는 33%인 5,445千m³가 生産될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地域別로 살펴보면 서울·京畿가 全体生産量 16,498千m³ 중 66%인 10,908千m³을 生産할 것으로 보이며, 地方은 34%인 5,590千m³가 生産될 것으로 展望된다.

5. 稼動現況

년도별 生産能力 對 稼動率 〈표 15〉은 80년의 경우 全國이 평균 43.5%인 반면, 서울·京

〈표 13〉 地域別 民官需別 레미콘 生産實績

(單位: M³)

	'80			'81		
	民 需	官 需	計	民 需	官 需	計
서울·京畿	2,474,289 (64.5)	1,360,573 (35.5)	3,834,862 (100.0)	2,881,231 (62.2)	1,748,975 (37.8)	4,630,206 (100.0)
江 原						
忠 北	215,801	21,711	237,518	246,741	20,319	267,060
忠 南	132,944	-	132,944	70,198	21,799	91,997
全 北	63,626	20,861	84,487	92,999	45,185	138,184
全 南	567,131	233,047	800,178	589,644	147,612	737,256
慶 北	599,340	188,668	788,008	891,403	386,098	1,277,501
慶 南				167	-	167
濟 州						
合 計	4,053,131 (69.0)	1,824,866 (31.0)	5,877,997 (100.0)	4,772,383 (66.8)	2,369,988 (33.2)	7,142,371 (100.0)
	'82			'83		
	民 需	官 需	計	民 需	官 需	計
서울·京畿	3,674,301 (60.5)	2,399,569 (39.5)	6,073,870 (100.0)	6,351,147 (68.2)	2,959,825 (31.8)	9,310,972 (100.0)
江 原	26,804	6,609	33,413	76,581	4,607	81,188
忠 北				108,945		108,945
忠 南	240,897	102,796	343,693	331,233	172,019	503,252
全 北	87,680	106,866	194,546	166,520	141,710	308,230
全 南	163,193	106,659	269,852	313,965	132,763	446,728
慶 北	575,018	283,537	858,555	924,623	349,316	1,273,939
慶 南	1,225,607	513,675	1,739,282	1,824,869	730,300	2,555,169
濟 州	29,279	-	29,279	80,529	20,809	101,338
合 計	6,022,778 (63.1)	3,519,712 (36.9)	9,542,490 (100.0)	10,178,412 (69.3)	4,511,349 (30.7)	14,689,761 (100.0)

註: () 內는 民·官需의 比率임.

畿는 56.1%이었고, 81년도에는 全國이 43.4% 서울·京畿는 52.1%, 82년은 全國이 51.5%, 서울·京畿는 57.8%, 83년에 와서는 全國의 稼動率은 56.3%로써 前年보다 約 5%가 增加되었으며, 서울·京畿의 稼動率은 61.7%로써 前年보다 約 4%가 增加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서울·京畿의 稼動率이 全國의 가동율보다 5.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맺음말

우리나라 레미콘 工業은 初創期 시멘트 生産會社에 의해 시멘트需要의 저변확대 및 流通手段의 한 方便으로 始作되었으나 78年度부터 非시멘트 業界의 대거 參與로 점차 普遍化 되면서 獨者産業으로서의 型態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

〈표 15〉 年度別 生産能力 對 稼働率

(단위 : M³)

年度別	區分	日間當生産能力	年間生産能力	生産實績	稼働率	비고
1980		6,750	13,500,000	5,877,997	43.5	
		(3,415)	(6,830,000)	(33,834,862)	(56.1)	
1981		8,220	16,440,000	7,142,371	43.4	
		(4,445)	(8,890,000)	(4,630,206)	(52.1)	
1982		9,264	18,528,000	9,542,490	51.5	
		(5,255)	(10,510,000)	(6,073,870)	(57.8)	
1983		13,046	26,092,000	14,689,761	56.3	
		(7,545)	(15,090,000)	(9,310,972)	(61.7)	

註 : () 내는 서울·경기의 숫자임.

〈표 14〉 1984 年度 레미콘 生産展望

(單位 : 千 m³)

區分 地域別	官需	民需	計	構成比 (%)
서울·京仁	3,600	7,308	10,908	66.0
地方	1,845	3,745	5,590	34.0
合計	5,445 (33)	11,053 (67)	16,498	100.0

註 : 1) 官需物량은 84年度 契約量임.

2) 民需物량은 지난 4年間(80~83)의 民·官需 生産實績値에서 各各의 比率를 平均하여 그 比率를 官需契約量에 代入하여 計算한 推定値임.

3) () 內는 民·官需 比率임.

러나 아직도 先進國水準에 비하면 規模·施設·技術·普級面에서 여전히 落後되어 있는바, 新需要開發을 위한 經營管理開善 및 技術開發 如何에 따라 우리나라 레미콘 工業은 앞으로 發展의 여지가 많은 業種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元奘한 發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點을 고려해야 하겠다.

첫째, 需要增加에 따른 供給能力을 提高시켜야 하겠다.

오늘날 시멘트 벌크화의 增大 및 建設工事의 大型化는 상대적으로 레미콘 需要를 急增 시킬 것이 필연적이며, 특히 86아세안게임, 88올림픽 및 大規模干拓 事業은 물론, 一般國民들이

레미콘에 대한 認識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레미콘 需要는 繼續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新規工場의 입지부족은 물론 京仁地域의 경우 一部工場은 公害방지법, 환경보전법, 공장배치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撤去·移轉해야 할 形편에 있어 갈수록 레미콘 供給은 不足할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需給의 不均衡이 深化될 경우에는 流通秩序가 紊乱해질 것이고, 價格派動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難題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레미콘 團地를 造成하여 塔結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技術指導 및 品質改善의 科學化

레미콘은 建設工事의 必須不可缺한 基礎資材로서의 品質이 最優先되어야 한다. 물론 레미콘은 대부분이 KS 製品이지만 現場의 作業如何에 따라 質의 差異가 날 수 있고 또한 工事能率만을 앞세운 나머지 加水 등 便法工事로 인한 質의 低下를 招來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의 防止策은 풍부한 技術蓄積 및 經驗을 바탕으로 한 製品이 生産되어야 하며, 製造 및 檢査設備를 完備하고, 高級技術人力 確保로 工程管理를 徹底히 해야 하며, 原資材調達 및 製品의 生産管理機能이 体系的으로 이워져야 한다.

셋째, 工場의 全國分散方案이 講究되어야 하겠

다. 지금까지는 需要에 따른 自然現象으로서 대부분의 工場들이 大都市에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되지만 원거리 수송이 不適合한 레미콘의 特殊性을 고려한다면 中小都市로 工場을 分散시킬 수 있는 方案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96개 공장 중 忠北에는 1個社 2個工場, 제주·강원은 각각 3個工場씩밖에 없는 것은 그 단적인 例라 하겠다.

네째, 設備近代化에 의한 레미콘의 質的向上과 消費者保護를 위해서는, 製品의 均一化와 大型建設 需要에 따른 適期·適量의 供給을 위해서는 設備의 大型化 및 最新 自動化設備를 設置하여 콘크리트의 質的向上을 꾀함은 물론, 消費者保護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그리고 날로 增加하는 都市生活의 公害문제인 대기오염, 폐수, 소음·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公害방지시설의 設비投資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主要 原資材 需給의 安定化 레미콘의 主要原資材는 시멘트와 骨材인데, 지방에 있는 일부 工場은 規模가 작고 資金事情이 원활

치 못한데다가 시멘트의 適期確保와 그 代金決濟過程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兩業界가 相互補完해 共同方案을 모색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骨材確保에는 根源의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즉 지금까지는 自然骨材가 大宗을 이루어 왔지만 머지 않아 河川骨材資源이 고갈될 것으로 보아 大規模 石山開發이 要求된다. 그러나 現在 石山の 大部分이 自然綠地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長期的인 眼目에서 政策的으로 解決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레미콘 工業은 아직도 成長段階에 있는 産業으로서, 以上과 같은 問題點들을 해소하고, 先進國 水準의 技術과 品質을 開發·發展시켜 나간다면 近代의이고 合理的인 先進産業으로 成長해 갈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레미콘 工業現況을 살펴보았지만 不實한 資料로 인해 單純分析에 그치고만 감이 있어 次期の 調査를 통해 補完할 計劃이다.*